http://dx.doi.org/10.15749/jts.2021.22.4.001

번역학연구
2021 특별호 제22권4호

라이선스 뮤지컬 문화소 번역 사례 연구: <렌트>를 중심으로*

강 인 혜** · 이 지 민***
(계명대)

1. 서론

지난 20여 년간 국내 뮤지컬 시장 규모는 코로나19로 공연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기 전인 2019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3,784억 원을 기록했다(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2000년 140억 원 정도로 추산되던 시장(박병성 2018)이 20년 만에 약 27배 성장한 것이다. 뮤지컬 시장 중에서도 가장 큰 점유율을 자랑하는 것이 라이선스 뮤지컬이다. 인터파크의 뮤지컬 연간 판매 순위(매수 기준) 기록을 보아도 2018년에는 오리지널 뮤지컬 한 편, 창작 뮤지컬 두 편을 제외한 모두가 라이선스 뮤지컬이었고,[1] 2019년에도 오리지널 뮤지컬 한 편, 창작 뮤지컬 네 편을 제외하고 1, 2, 5, 6, 10위를 라이선스 뮤지컬이 차지했다.[2] 이렇게 국내에서 라이선스 뮤지컬이 흥행함에 따라 마니아층 위주로 뮤지컬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고 있으며 제작사 또한 번역을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박천휘 2019).

특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볼 수 있는 지면 번역과는 달리 한 번 공연이 되면 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시공간적 제약이 있는 뮤지컬의 경우, 시대성과 지역성이 뚜렷해 도착어 문화와 차이가 큰 작품을 번역할 때는 독자의 즉각적인 이해의 문제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라이선스 뮤지컬의 한국어 번역에서 문화적 측면을 가독성과 충실성 측면에서 다루는 연구는 일부 존재하나(김영신 2014; 조성은과 홍승연 2017; 홍정민 2016, 2020), 이들이 문화 측면에서의 번역 전략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뮤지컬 번역에서 이질적 문화가 어떤 식으로 번역자에 의해서 중개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La Boheme)>을 모티브로 한 록 뮤지컬의 2004년 라이선스 공연본 <렌트(Rent)>를 대상으로 문화소 번역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논의하고자 한다.

<렌트>는 브로드웨이에서 9번째로 장기 공연한 작품으로서 2억 8,0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바 있다(김형중 2014: 219). 국내에서는 2000년 신시컴퍼니가 최초로 선보인 후 흥행에 성공해 꾸준히 공연되어 왔다. 2001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20년 공연되었고, 2001년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남우신인상, 여우신인상, 안무상, 무대미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80-9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렌트>는 클럽 댄서, 드러머 등의 독특한 직업을 가진 가난한 젊은 예술가, 에이즈, 동성애, 마약 중독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도 문화적인 이질감을 느끼는 소재이므로 해당 작품이 공연되었던 2004년에는 훨씬 이질감이 강했을 것이다. 뮤지컬 <렌트> 티켓 판매 사이트인 인터파크 티켓의 과거 후기[3]를 살펴보면 "동성애와 마약

*이 연구는 2020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제1저자, *** 교신저자
1) 2018 인터파크 공연티켓 판매액 5,441억원, 23% 성장(https://incorp.interpark.com/communication/CompanyInfoView.do?_method=dtl&sc.brdNo=900117&sc.ntcNo=842&sc.page=1).
2) http://www.playdb.co.kr/magazine/magazine_temp_view.asp?kindno=2&No=5043&NM=Y
3) 연구 대상 대본이 2004년이나 당시 후기는 존재하지 않아 2009년, 2011년 후기를 참

www.kci.go.kr

등의 소재로 우리나라에서는 익숙지 않은 소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터부시되는 동성애를 주제로", "과도하게 선정적인 장면이 있어서" 등의 후기가 관찰될 만큼 청중이 해당 소재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품이 관객에게 호응을 받았다는 점을 볼 때 문화적 차이를 줄이려는 번역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뮤지컬 번역자와 공연 당시 사회적 배경

뮤지컬 번역에는 연출가, 번역가, 음악감독, 배우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김영신 2014; 이지민 2017; 홍정민 2016; Kirk 2008). 라이선스 뮤지컬은 여러 단계에 걸쳐 번역된다(이지민 2017). 번역가는 연출가로부터 번역 지침을 받고 작품 분석이나 관련 영상 등을 참조해 번역 전략을 수립한 후 번역을 수행한다. 이렇게 번역된 대본은 배우와 음악 감독, 연출가가 함께 수정을 한다. 또한 공연 기간 중에도 관객들의 반응에 따라 번역이 수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라이선스 뮤지컬에서의 번역은 번역자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뮤지컬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여러 단계에서 함께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 '번역자'는 이들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번역은 문화를 중재하는 간문화(間文化) 번역이다. 즉, 수용 문화권의 시대적·사회적 맥락은 번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김영신 2014). 뮤지컬도 예외가 아니다. 라이선스 뮤지컬 <스위니 토드>의 재번역을 살펴본 연구(홍정민 2016)에서는 2007년 공연 가사와 2016년 공연 가사를 분석하며 한국 뮤지컬 산업 환경과 사회 변화의 영향을 받아 최근의 가사에서 번역이 더욱 노골적이 되거나 자극적인 표현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관객이 자극적 표현과 엽기적인 소재의 작품에 익숙해지는 뮤지컬 산업의 변화,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

고했다(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08006974#TabTop,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1007401#TabTop).

묻지마 범죄 등이 도드라지게 된 한국 사회의 변화가 번역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렌트> 대본이 번역되고 공연된 2004년은 국내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고 화성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 검거되었으며 황우석이 사이언스지에 인간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해다. 2003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얼짱'이라는 신조어는 점차 확대되어 '몸짱', '쌈짱', '얼짱', '겜장', 심지어 얼굴이 예쁘다는 점을 강조하는 '강짱'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기도 했고, 블로그와 미니홈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연합뉴스 2004. 12. 15).

1995년 국내에서 에이즈가 처음 발생한 이래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자극하는 기사가 꾸준히 보도되었고, 에이즈에 대한 편견은 2004년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학 기간에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잘못 알고 고민하던 30대가 옥상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에이즈 환자의 적극적 감시와 격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독자 투고가 있을 정도로 에이즈와 감염인에 대한 사회의 오해와 편견이 심한 시절이었다(박기호 2005. 8. 19). 당시 에이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동성애가 걸리는 천형'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이상훈 2014. 11.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2000년 제정되어 법률 위반에 대해 최대 사형이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그 결과 1999년 1만 명 이상이 적발되던 마약류 사범은 200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강력한 단속이 맞물려 2003년부터 7,000명으로 감소했다(서동욱 2008. 2. 3). 2002년에는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마약은 스스로 파는 무덤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광고를 만들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도 관찰된다. 2003년 동성애자임이 알려진 뒤 학교에 머무를 수 없게 된 소년이 자살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애자를)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엄지원 2013. 4. 24). 2003년 7월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군형법 92조)하는 군복무를 거부한 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이지웅, 박준규 2014. 7. 18).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인터넷 공간에서 성소수자 사이트들을 검열하고 유해 사이트로 취급해 관리했다.

www.kci.go.kr

한편 2002년 홍석천이 커밍아웃을 했고, 트랜스젠더인 하리수가 여성으로 호적이 정정되었으며(이성주 2002. 12. 1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의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명시한 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다.

이렇듯 당시는 동성애자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회적 터부는 여전히 강하게 존재했으나 성소수자들의 커밍아웃과 인권 측면에서의 제도적 고려가 조금씩 나타나는 등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해 상반된 태도가 혼재하기 시작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2 문화소

문화소(cultureme)는 문화특수성이 반영되는 어휘(Vermeer 1983, 정호정 2008: 44에서 재인용), 문화 관련 어휘(culture-bound terms)(Diaz Cintas and Remael 2007: 200), 문화 특정 항목(culture-specific items)(Aixela 1996), 문화 특정 개념(culture-specific concepts)(Baker 1992; Ordurary 2007), 문화 어휘(cultural word)(Newmark 1988), 실제소(realia)(Reiss 2000), 문화 관련 요소(culture-bound elements)(Hagfors 2003), 문화 특정 어휘(culture-specific references)(Antonini 2005),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남성우 2006) 등으로 불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문화소'로 통칭한다.

문화소에 관한 해외 연구는 문화소의 정의, 분류, 번역 방법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Aixela 1996; Baker 1992; Franco 2007; Hagfors 2003; Hervey and Higgins 1992; Katan 2004; Leppihalme 1997; Newmark 1988; Nida 1945; Pedersen 2011; Reiss 2000; Vinay and Darbelnet 1958/2003). 국내의 문화소 관련 연구는 강수정(2010), 강영주(2009), 권인경(2013), 김도훈(2006), 김효중(2004), 노진서(2007), 박옥수(2012), 이가람(2016), 이근희(2003), 이지민(2015), 이현경(2014), 정호정(2008), 조재범(2014) 등이 있으며 문화소 분류와 번역 전략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문화소의 정의는 "출발 문화권의 특정한 개념, 제도, 혹은 인물 등을 지칭하는 용어"(Diaz Cintas and Remael 2007: 200, 이지민 2015에서 재인용), "특정 문화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한정되어 번역 시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문화적 사건 및 제도"(Reiss 2000: 76, 조재범 2015: 11에서 재인용), "X라는 문화 구성원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를 Y라는 문화의 사회 현상과 비교할 때 X 문화에 한정되는 요소"(Nord 1997, 이가람 2016: 31에서 재인용), "원천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공동체의 역사, 사회, 경제, 정치, 언어 관습을 둘러싼 고유한 특정 문화에서 비롯되는 어휘"(이근희 2008: 248), "어느 특정 상황에서 특정의 이해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유발시키는 어느 언어권의 모든 문화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일컫는데,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원어 문화권에 나타나지만 역어 문화권에는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다르게 정의된 비언어적 현상이나 제도"(김효중 2004: 37)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문화소는 한 언어·사회·문화권에서 해당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나 다른 언어· 사회·문화권과는 공유되지 않는 특정한 문화 요소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간극 때문에 문화소를 번역하는 것은 번역사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소 번역을 문화 관련 번역 '문제'(culture-bound translation 'problem')로 다루고 있다(Leppihalme 1997: 2).

2.2.1 문화소 분류

니다(Nida 1964)는 문화적 등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점을 생태 문화, 물질 문화, 사회 문화, 종교 문화, 언어 문화(관용어, 속담 등)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베이커(Baker 1992)는 문화소를 단어, 연어와 관용어구, 문법, 텍스트, 화용론 다섯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익셀라(Aixela 1996)는 고유명사, 도량법 및 화폐 단위, 언어유희, 음식, 역사적 인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뉴마크(Newmark 1988: 94)는 니다의 이론을 토대로 물질 문화, 생태 문화, 사회 문화, 조직, 관습, 행동, 절차, 개념 등에 관련된 문화 그리고 제스처와 습관의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페더슨(Pedersen 2011)은 문화소를 도량형, 고유명사, 직함, 음식, 문학, 정부, 오락, 교육, 스포츠, 화폐, 기술 자료,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근희(2003: 7)는 문화소를 다음과 같이 고유명사, 특정 문화와 관련된 어휘,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어휘, 관용구, 도량형 단위, 언어 사용 관습에서 비롯되는 표현 등 여섯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www.kci.go.kr

1) 고유명사: 인명, 건물명, 조직명, 서명 등
2) 특정 문화와 관련된 어휘: 의, 식, 주, 지역, 사회, 관습 등
3) 특정 사건과 관련된 어휘
4) 관용구
5) 도량형의 단위: 화폐, 거리, 높이, 중량 등
6) 언어사용 관습에서 비롯되는 표현: 직위와 인명의 동시 표현, 날짜 표기 방법 등

조재범(2015)은 한국 영화의 영화 자막 번역을 대상으로 문화소를 고유명사군, 도량형과 화폐 등의 문화 특수어군, 특정 집단에서 특정 시기에 고유의 의미를 갖는 어휘를 포함한 사회적 특수어군, 속담, 격언, 비유, 관용적 표현 등 시기를 초월해 공동된 의미를 가지는 관용어군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지민(2015)은 TED 영상 번역 분석을 위해 이근희(2008)의 분류에 부족한 자연 관련 어휘를 추가하고 관용어에 비속어와 비유를 포함해 좀 더 세분화한 분석틀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도량형: 화폐, 거리, 중량
2) 고유명사: 인명, 지명, 조직명, 작품명
3) 함의가 있는 고유명사(인물, 사건)
4) 문화 및 자연 관련 용어: 의식주, 지역, 사회 관습, 자연 환경 등과 관련된 어휘
5) 관용어: 속담, 관용구, 은어, 비속어, 비유

2.2.2 문화소 번역 전략

프랑코(Franco 2007: 101-107)는 문화소 번역 전략이 크게 보면 출발텍스트(ST)에서 언급한 것을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하는 쪽에서 가까운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으로 보고 '보존'과 '대체'로 문화소 번역을 나누었다. 보존은 ST의 성질을 목표 텍스트(TT)에 반영시키는 전략이며 대체는 목표 독자를 배려하여 목표 언어와 문화에 최대한 가까운 표현으로 바꾸는 전략이다. 하버리와 히긴스(Harvery and Higgins 1992)는 문화소 번역 시 ST를 직역하는 것과, ST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가는 아니지만 ST에 포함된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다른 형식으로 대체하는 등의 전략을 제시한다. 이 두 학자가 제

시하는 전략 모두 근본적으로는 베누티(Venuti 1995)의 '이국화', '자국화' 전략과 유사하다 하겠다. 아익셀라(1996)는 보존과 대체라는 번역 전략에 더해 삭제 전략을 의도성이 있는 행위로 간주하여 범주에 포함시켰다.

베이커(1992: 26-42)는 문화소 상위어를 활용한 일반화 전략, 중립적 단어 사용, 문화 대체어, 차용 혹은 차용과 부연 설명, 상관어를 사용한 풀어쓰기, 비상관어를 사용한 풀어쓰기, 생략, 삽화 사용을 단어 차원의 문화소 번역 전략으로 제시하고, 유사한 의미에 유사한 형태로 번역하기, 유사한 의미에 다른 형태로 번역하기, 풀어쓰기, 생략의 네 가지 전략을 관용어구 차원의 문화소 번역 전략으로 제시했다.

비네와 다벨네(Vinay and Darbelnet 1958/2003: 25-35, 조재범 2015: 22에서 재인용)는 번안, 등가, 변조(modulation), 치환(transposition), 직역, 모사(calque), 차용 등 7가지 기법을 제시한다. 뉴마크(1988: 45)는 ST를 강조하는 번역 방법으로 단어 대 단어 번역, 직역, 충실한 번역, 의미 중심의 번역을 제시하였고 도착텍스트(TT)를 강조하는 번역으로는 번안(adaptation), 자유 번역(free translation), 관용어구 중심의 번역(idiomatic translation), 소통 중심의 번역(communicative translation)을 제시했다.

카탄(Katan 2004)은 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정보를 부가하여 명시화하는 방법, 생략, 삭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층위 전환 개념을 도입해 상위어를 활용한 번역(chunking up), 하위어를 사용한 번역(chunking down), 유사 어휘로 대체하는 번역(chunking sideways)을 제시한다. 상위어를 활용한 번역은 '일반화'로 알려져 있는 전략이고, 하위어를 사용한 번역은 '구체화' 전략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테이블'을 '가구'로 번역하면 일반화, '식탁'으로 번역하면 구체화, '소파'나 '의자'로 번역하면 대체에 해당한다(Katan 2004: 147-157). 카탄의 경우 베이커의 상위어 번역 전략에 더해 하위어라는 새로운 어휘 층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페더슨(2011: 74-77)은 출발어 그리고 도착어 중심의 관점에서 번역 전략을 보존, 구체화, 직역, 일반화, 대체, 그리고 생략 등 6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각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외국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소 번역 전략에서는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번역 전략을 평균 6가지 정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외국 선행 연구들을 보완한 문화소 번역 전략을 제시한다.

www.kci.go.kr

조재범(2015)은 아익셀라(1996)와 페더슨(2011)의 번역 전략을 참조하여 보존, 대체, 생략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이 세부 전략을 제시한다.

1) 보존: 직역/ 부분 보존
2) 대체: 정보의 추가, 일반화, 문화적 대체, 상황적 대체
3)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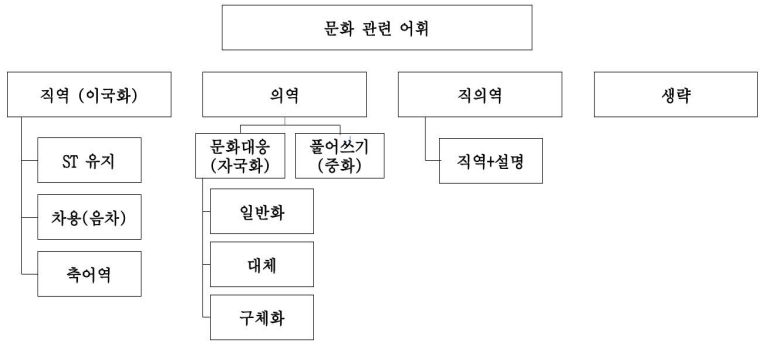
강영주(2009: 19-23)는 상위어 사용 전략, 문화 대체어 사용 전략,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 사용 전략, 부연 설명 제공 전략을 문화소 번역 전략으로 제시한다. 김도훈(2006)은 상위어 사용 전략, 문화 대체어 사용 전략,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 사용 전략, 부연 설명 제공 전략, 중립적 어휘 사용 전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박옥수(2012)는 뉴마크의 번역 방식 중에서 문화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어휘에 적용될 수 있는 항목만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문화적·기능적 등가의 적용, 명시화 전략, 생략, 기타(통사적인 변이, 동의어 표현 등)를 번역 방법으로 제시했다. 노진서(2007)는 시에 나타난 문화소를 분석하였는데 상위어에 의한 일반화 전략, 풀어쓰기에 의한 구체화 전략, 문화 대체어로의 대체 전략, 음차 번역 전략을 포함하였다. 권인경(2013)은 어휘, 관용어구, 문법, 맥락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어휘적 측면에서는 상위어, 일반적 어휘, 문화 대체어, 차용어, 부연 설명으로 나누고 관용어구적 측면에서는 유사한 의미에 유사한 형태로 번역, 유사한 의미지만 형태가 다르게 번역, 풀어쓰기의 전략이 있다고 제시한다. 문법적 측면에서는 어순의 변화와 경어법 전략, 맥락적 측면에서는 명시화와 삭제의 전략이 있다.

이근희(2008: 266-267)는 다음과 같이 6가지 문화소 번역 전략을 제시한다.

1) 관련 정보의 삽입 없이 음역하기
2) 음역 후 관련 정보를 문장 내에 자연스럽게 삽입하기
3) 음역 후 관련 정보를 역주의 형식으로 문장 내에 삽입하기
4) 음역 후 관련 정보를 각주로 삽입하기
5) 상위어로 번역하기
6) 대응되는 도착어휘에 관련 정보를 괄호로 삽입하기

이지민(2015)은 TED 번역에 나타나는 문화소 전략 분석을 위해 상기한 학자들의 분석틀을 종합해 아래 그림 1과 같은 분석틀을 만들었다.

그림 1 문화소 전략 분석틀



위 그림 1에 나와 있듯이 직역(이국화), 의역, 직의역, 생략으로 나눈 후, 각 전략을 좀 더 세분화하였다. 직역(이국화)에는 출발어 어휘를 알파벳 그대로 사용하는 ST 유지, 음차하는 차용과 축어역이 있다. 의역에는 도착어 문화에 익숙한 것으로 바꾸는 자국화 전략과 의미를 풀어 쓰는 풀어쓰기(중화) 전략이 있다. 문화 대용 전략을 상위어를 사용하는 일반화, 유의어를 사용하는 대체, 하위어를 사용하는 구체화로 나누었다. 직의역은 직역에 설명을 자연스럽게 넣는 경우 혹은 괄호를 사용해 역주를 포함한 부연 설명을 추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생략은 출발어 어휘를 번역하지 않는 경우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되 팬자막 특징을 고려해 적절히 수정한 틀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렌트> 문화소 번역 전략을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소에 관한 선행 연구를 포괄적으로 종합하면서 지면 번역이 아닌 영상 번역 분석에 특화시킨 이지민(2015)의 전략틀을 기반으로 하되 본 연구자가 뮤지컬 번역에 맞게 수정한 범주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www.kci.go.kr

3. 분석

3.1 분석 대상

실제 공연 참여자가 아닌 이상 라이선스 뮤지컬의 대본이나 악보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국내 제작사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대본의 외부 유출을 금하고 있어 개인이 번역 대본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속한 계명대학교에는 음악공연예술대학에 연극뮤지컬 전공이 있어 전공 교수님을 통해 연구를 목적으로 2004년에 신시뮤지컬컴퍼니[4]가 제작하고 7월 2일부터 장기 상업 공연된 대본과 악보를 확보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번역자는 당시 유명한 연출가이자 번역가인 김철리다. 김철리는 신문방송학 학사, 공연예술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연극과 뮤지컬 번역자 및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렌트> 외에도 <키스 미 케이트>(2001), <맘마미아>(2007), <유린타운>(2003), <아이다>(2005) 등의 라이선스 뮤지컬을 번역했다.[5] 김철리는 또한 공연예술축제 극단 서강 대표, 국립극단 예술감독, 수원화성국제연극제 예술감독,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예술감독을 역임한 바 있다. 다수의 연극 작품을 연출해 동아연극상 연출상, 백상예술대상 연출상, 한국뮤지컬대상 연출상(연합뉴스 2006. 9. 25), 서울연극제 번역상을 수상하기도 했다.[6]

3.2 분석틀

본고에서 사용할 문화소 분류틀은 이지민(2015)의 틀을 기준으로 하되 <렌트>의 특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수정한 기준을 사용할 것이다.

1) 도량형: 화폐, 거리, 중량, 시간(날짜)
2) 고유명사: 인명, 지명, 조직명, 작품명, 제품(사물)명

4) 라이선스 뮤지컬 <시카고>, <맘마미아>, <아이다>, <빌리엘리어트> 등 대작 라이선스 뮤지컬을 제작해온 공연업체이다. 2009년에 ㈜신시컴퍼니로 기업명을 변경함.
5) 인터파크 인물 DB. http://www.playdb.co.kr/artistdb/detail.asp?ManNo=8106.
6) 인터파크 인물 DB http://www.playdb.co.kr/artistdb/detail.asp?ManNo=8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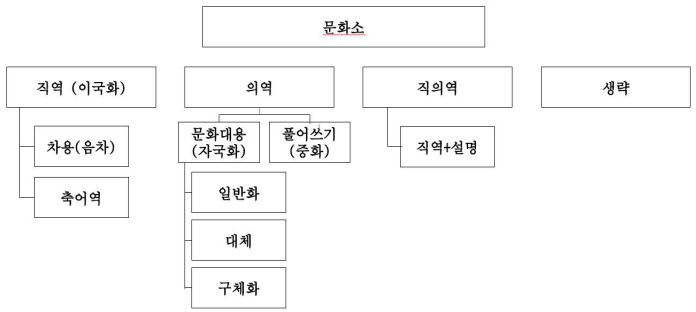
www.kci.go.kr

3) 함의가 있는 고유명사(인물, 사건)
4) 사회·문화 관련 용어: 의식주, 지역, 사회 관습, 자연환경, 종교 관련 어휘, 특정일 관련 어휘
5) 관용어: 속담을 포함한 관용구, 속어, 비유, 외국어
6) 비속어: 욕설 및 선정적 어휘

이지민(2015) 틀과 대비해 관용어에서 비속어(욕설 및 선정적 어휘)를 분리하고 더 세분화했다. <렌트>라는 작품의 특성상 특정 세대와 특정 집단에서 통용되는 욕설과 선정적 어휘가 빈번하게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소 번역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지민(2015)의 이국화/자국화, 의역과 직역 전략을 포함한 '문화 관련 어휘 번역 전략 분석틀'을 분석틀로 삼았다. 해당 틀이 기존의 문화소 번역 전략을 포괄적으로 종합한 틀이며, 지면 번역이 아니라 영상 번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본고의 분석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단, 해당 틀은 영상 번역 중에서 자막 번역을 위한 틀이므로 결과물이 입말인 라이선스 뮤지컬 번역에 맞게 다음과 같이 조정했다.

그림 2 문화소 번역 전략 분석틀



문화소 번역 전략은 크게 직역(이국화), 의역, 직의역, 생략의 방법 전략으

로 구성했다. 먼저 직역(이국화) 전략은 ST를 음차하는 차용, 의미를 직역하는 축어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본 작품은 지면 텍스트가 아닌 배우의 목소리로 대사와 노래가 제공되므로 이지민(2015)의 분류에 있는 'ST 유지(원문 알파벳 그대로 적기)'는 의미가 없어 삭제했다.

의역에는 도착어 문화에 익숙한 것으로 바꾸는 문화 대용(자국화)과 문화 특정 대용어를 찾지 않고 의미를 풀어 쓰는 풀어쓰기(중화)가 있다. 자국화 전략은 다시 상위어를 사용하는 일반화, 유의어로 변경하는 대체, 하위어를 사용하는 구체화가 있다. 예를 들면, 'nickel'를 '돈'으로 번역하는 경우는 일반화, 패션 브랜드 'L.L Bean'을 '프라다'로 번역하는 경우는 대체, 'Ivy League'를 '하버드대학교' 등으로 번역한 경우는 구체화로 본다. 한편, TT에서 ST 문화소의 문화적 색채를 지우고 해당 어휘의 뜻을 풀어 번역하거나 아예 다른 범주로 바꾸어 풀어 번역한 경우는 풀어쓰기(중화) 전략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Let me kiss your Doc Martens.'(너의 닥터 마틴 신발에 키스라도 할게)를 '시키는 건 뭐든 할게'라고 번역한 경우 중화 전략으로 분류한다.

직역과 의역 사이에 직의역이 존재한다. 직역을 하고 설명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ST 어휘를 번역하지 않는 생략 전략이 있다.

본고에서는 위 문화소 분류와 문화소 번역틀에 따라 뮤지컬 <렌트> ST에 나온 문화소를 전수 추출해 TT에서의 번역 양상을 분류하고 분석했다. 분석 신뢰도 확보를 위해 본 연구자가 여러 번 분류를 수행했고, 본 연구자의 최종 분류를 다른 연구자가 확인해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4. 분석 결과

뮤지컬 <렌트>에 나오는 문화소를 도량형, 고유명사, 함의가 있는 고유명사, 사회, 문화 관련 용어, 관용어, 비속어 및 선정적 어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4.1 도량형

뮤지컬 <렌트>에의 도량형 문화소 분류와 번역 전략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도량형 번역 전략

분류	직역		의역		생략	합계 (%)
	차용 (음차)	축어역	일반화	중화		
화폐	1	0	5	0	0	**6(35)**
거리	0	0	0	6	0	**6(35)**
중량	2	0	0	0	1	**3(18)**
날짜/시간	0	2	0	0	0	**2(12)**
합계 (%)	**3(18)**	**2(12)**	**5(29)**	**6(35)**	**1(6)**	**17 (100)**

화폐, 거리, 중량, 날짜/시간 등의 도량형 번역의 경우, 항목에 따라 차용, 축어역, 일반화, 중화, 생략 전략이 달리 관찰되었다. 그러나 구체화, 대체, 직의역 등의 번역 전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먼저, ST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화폐는 dollar 3건, nickel 2건, dime 1건이다. 번역 전략으로 차용(음차)을 사용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자국화 전략 중 일반화가 사용되었다. 차용한 경우는 'dollar' 한 건인데, 'We agreed on a fee - A thousand dollar guarantee'를 '우리는 정했죠, 선불로 천 달러!'로 번역했다. '달러'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단위이므로 낯설게 하기의 전략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nickel'이나 'dime' 등은 직역하지 않고 아래 <표 2>처럼 '돈', '푼', '돈 뭉치' 등으로 일반화해 번역해 이질감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

〈표 2〉 화폐의 일반화 번역 양상

ST	TT
You've got one nickel only	돈이 한 푼 없어도
Can't you spare a dime or two	적선하슈, 한 푼만!
You gotta dollar?	돈은 좀 있수?
In contracts -- dollars	계약서, 돈 뭉치,

거리나 중량 단위는 아래 <표 3>과 같이 ST에서 ounce, gram, gallon이 각

www.kci.go.kr

1건씩, inch가 2건, mile이 4건 사용되었다.

〈표 3〉 거리, 중량 번역 양상

ST	TT
That is an ounce	1온스짜리
I said it's a gram!	일 그램이야
While accompanying herself on the 10 gallon plastic pickle tub.	X
In inches -- In miles In laughter -- In strife	만남과 이별의 시간들로?
I gave a mile	할 만큼 했어
Gave a mile to who?	뭘 얼마나 해줬는데?

한국인에게 생소한 'gallon'은 생략한 반면, 'ounce'는 온스로 번역했다. 온스는 마약 중량 단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이질감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gram'을 제외하고는 다른 단어로 바꾸거나 풀어쓰는 중화의 방법을 사용했다. 상대적으로 익숙한 단위인 'inch'는 'mile'과 함께 '시간'으로 의역했는데, 이는 ST에서도 은유적(많은 걸 주었다는 뜻)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해 시적인 효과를 우선순위에 두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번역자의 노력으로 보인다. 반면 'I gave a mile'은 ST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TT에서는 직접적으로 풀어 설명했다.

4.2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인명, 지명, 조직명, 작품명, 제품(사물)명이 있으며 다양한 번역 전략이 관찰되었다. TT 문화권에서도 알려져 있는 고유명사들은 음차되었으며, 흔히 사용되지 않는, 즉 청중이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고유명사들은 의역되었다. 의역의 방법으로는 일반화, 대체, 중화가 고루 사용되었다. 고유명사의 번역 양상을 표로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고유명사 번역 전략

분류	직역		의역			직의역	생략	합계 (%)
	차용 (음차)	축어역	일반화	대체	중화	직역+ 설명		
인명	5	0	2	6	17	0	4	**34 (30)**
지명	8	1	3	1	6	1	13	**33 (29)**
조직명	5	4	3	10	5	0	6	**33 (29)**
작품명	0	0	0	0	1	0	0	**1(1)**
제품명 (사물명)	1	1	5	1	3	0	1	**12 (11)**
합계(%)	**19 (17)**	**6 (5)**	**13 (12)**	**18 (16)**	**32 (28)**	**1 (1)**	**24 (21)**	**113 (100)**

고유명사의 경우, 중화 전략이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었고, 생략, 차용, 대체, 일반화, 축어역의 순으로 관찰되었다. 직의역은 'Parthenon'을 '파르테논 신전'을 번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으며, 구체화 전략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고유명사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인명이다. 인명은 중화, 대체, 차용, 생략의 다양한 번역 전략이 발견되고 있다. 철학자 'Heidegger'는 '철학'으로, 미국의 영화감독 겸 배우인 'Spike Lee'는 '영화 촬영'으로 자국화 전략 중 상위어를 사용한 일반화 전략이 관찰되었다. 한편 한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Alec Baldwin'은 '알렉 볼드윈'으로 음차되었다.

인명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된 전략은 중화(17건, 50%)인데 여러 낯선 고유명사를 한 데 묶어 중화해 번역하는 전략이 관찰되었다. 아래 <예 1>이 대표적 예다.

<예 1>
ST: To Sontag, Ginsberg, Dylan, Cunningham and Cage
TT: 앞서 간 창조적인 예술을 위해

넘버 'La Vie Boheme'에는 'Sontag, Ginsberg, Dylan, Cunningham and

www.kci.go.kr

Cage'와 같이 유명 예술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를 '앞서 간 창조적인 예술을 위해'로 번역해 문화 색채를 빼고 중화해 풀어쓰는 전략[7]을 사용했다. 한국 청중들은 이들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고, 멜로디가 동반된 가사이므로 자수 제한이 있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명은 생략, 차용, 중화, 일반화 전략이 관찰되었다. 이 중 생략 전략이 가장 우세하다(13건, 39%). 'Paris', 'French', 'New York'과 같은 국가, 대도시명은 대부분 음차되었지만 'Pound Ridge', 'East Hampton', 'Westport', 'Scarsdale'과 같은 소도시 지명은 대부분 <예 2>처럼 생략되었다. 일부는 <예 3>과 같이 의역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한국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지명의 경우 생략을 하거나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경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예 2>
ST: I'd honestly rather be with you tonight than in Westport
TT: 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아

<예 3>
ST: Pulling Benny out of the East Village location
TT: 앨리슨이 베니를 우리 동네에서 끌어내고 있는 중이야

조직명은 대체, 생략, 중화, 음차, 일반화 등의 전략이 고루 발견된다. 아래 <예 4>가 대체의 대표적 예다.

<예 4>
ST: Or you can e-mail me at Darling Alexi Newscom dot net
TT: 아니면 이메일 해요, www. 알렉시. yes. yahoo. com

ST의 인터넷 주소를 TT에서는 한국에서 잘 알려진 대표적 인터넷 주소 'yahoo.com'으로 대체해 해당 발언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지칭하고 있음을 유머

7) 여러 예술가를 '예술'로 번역해 일반화로 볼 수도 있으나 '앞서 간 창조적인'을 추가해 개별 예술가들의 특징을 설명했다는 점을 감안해 중화 범주에 넣었다.

러스하게 전달했다. 대학명인 'MIT'와 'Harvard'는 그대로 음차해 'MIT 공대'와 '하버드'로 번역했다. 이들은 한국인에게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음차 전략을 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제품명의 경우 일반화가 가장 우세했다. 'Doc Martens'는 신발 브랜드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워커', '신발'로 일반화했다. 아래 <예 5>는 일반화의 예다.

<예 5>
ST: No Doc Martens this time and wear a dress...
TT: 워커 좀 신지 말고 치마 입고 와

ST: I'll kiss your Doc Martens
TT: 네 신발에도 키스할게

한편, 동일 브랜드라도 맥락에 따라 <예 6>처럼 중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

<예 6>
ST: Let me kiss your Doc Martens
TT: 시키는 건 모두 어떤 거든지 다 할게

'Doc Martens'를 '시키는 건 모두 어떤 거든지'로 중화해 풀어쓰기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패션브랜드인 'L.L Bean'과 'Geoffrey Beene'는 '프라다', '알마니'로 대체했다. 패션 브랜드 중 'Calvin Klein'은 한국에 널리 퍼져 있어 그대로 음차하여 사용하지만 다른 두 브랜드는 청중의 즉각적 이해가 힘들 것으로 판단해 다른 문화 대용어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4.3 함의가 있는 고유명사

함의가 있는 고유명사는 'Ms. Ivy League', 'Calcutta', 'America', 'Thelma and Louise', 'New Yorker', 'Angel' 등이 관찰되었다. 번역 전략을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www.kci.go.kr

〈표 5〉 함의가 있는 고유명사 번역 전략

분류	직역		의역		직의역	생략	합계 (%)
	차용 (음차)	축어역	일반화	중화	직역+ 설명		
함의가 있는 고유명사 (%)	3 (20)	0 (0)	3 (20)	7 (47)	2 (13)	0 (0)	15 (100)

중화 전략이 7건으로 가장 큰 비중(47%)을 차지했고, 그 뒤를 차용과 일반화(각 20%), 직의역(13%)이 따랐다. 구체화와 생략 전략은 나타나지 않았다. 중화 전략은 아래 <예 7>에서 볼 수 있다. '대도시에 사는 바쁜 현대인'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New Yorker'라는 표현을 '산다는 것 자체'로 아예 다른 범주의 어휘로 번역했다.

<예 7>
ST: Then why choose fear?
I'm a New Yorker!
TT: 근데 뭐가 두렵죠?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외에도 'Ms. Ivy League'를 '잘난 척하는 똑똑한 변호사'님으로 중화해 번역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흥행한 우정 영화인 'Thelma and Louise'는 '델마와 루이스'로 음차를 했고, 인도의 빈민 지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Calcutta'는 '빈민굴'이라고 상위어로 번역했다. 직의역 번역은 'Angel'의 번역에서 나타났는데, 'Angel'은 배역의 이름으로서 ST에서는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성품 모두를 가리키는 중의적 의미를 띤다. 이를 전달하기 위해 TT에서는 '앤젤...천사?'로 직역을 한 후 의미역을 추가해 표현했다. 이 외에는 직의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4.4 사회·문화 관련 용어

사회·문화 관련 용어는 의식주, 지역, 사회 관습, 자연 환경, 동화, 종교 관련 어휘, 특정일 관련 어휘 등 특정 사회 및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파악한 사회·문화 관련 용어 번역 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 5〉 사회, 문화 관련 용어 번역 전략

분류	직역		의역			생략	합계 (%)
	차용 (음차)	축어역	일반화	대체	중화		
의식주	0	0	1	7	2	1	**11 (15)**
지역	0	0	0	1	0	0	**1(1)**
사회 관습	1	1	1	8	1	2	**14 (19)**
자연환경	0	0	0	1	1	0	**2(3)**
종교 관련 어휘	2	0	0	3	1	1	**7 (10)**
특정일 관련 어휘	14	1	4	9	7	3	**38 (52)**
합계(%)	**17 (23)**	**2 (3)**	**6 (8)**	**29 (40)**	**12 (16)**	**7 (10)**	**73 (100)**

가장 많이 관찰된 문화소는 특정일 관련 어휘(38건, 52%)이다. 작품 배경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므로 크리스마스 관련 어휘들이 주로 등장하며 할로윈, 노동절과 같은 기념일 관련 어휘도 등장한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전략은 대체(총 29건, 40%)였으며 차용(17건, 23%), 중화(12건, 16%)가 뒤를 따랐다. 구체화와 직의역 전략은 관찰되지 않았다.

빈도가 높은 문화소 분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특정일 관련 어휘는 차용이 가장 많은 14건인데,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등이 여러 번 음차 번역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 전략(9건)이 그 뒤를 이었는데 'Happy new year'를 '새해 복 많이 받아' 등으로 국내 문화에서 통용되는 어휘로 바꾸어 번역한 경우가 주로 발견되었다. 중화 전략은 다음 <예 8>에서 볼 수 있다.

<예 8>
ST: It's trick or treat. ('Rent')
TT: 세상살이가 뺏나 뺏기나,

www.kci.go.kr

위 <예 8>은 'Rent'의 가사다. 할로윈 때 사용하는 관용적 어휘인 'Trick or treat'를 '세상살이가 뺏나 뺏기나'로 중화해 번역했다.

사회 관습은 'playing Spiderman'을 '낚시 놀이'로, 'hallucinogen'(환각제)를 '삼각관계'로 대체해 번역했다. 주로 넘버 내에서 '놀이', '관계' 등의 어휘 반복을 통해 운율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번역한 결과로 보인다.

의식주의 경우 TT 문화에 존재하지 않는 음식이 자주 등장한다. 'curry vindaloo', 'soy burger', 'huevos rancheros' 등이 그 예다. TT에서는 이를 순서대로 '인도 카레', '당근 버거', '인스턴트 없는 식탁'으로 번역했다. vindaloo는 인도 요리이며 매운 카레에 가까운 요리라고 한다. 자수를 늘리지 않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인도 카레'라고 일반화하여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huevos rancheros는 프라이하거나 삶은 계란을 또띠아에 얹고 토마토 소스를 치는 멕시코 요리[8]인데. 이를 '인스턴트 없는 식탁'으로 중화해 풀어썼다.

종교 관련 어휘는 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휘에 대해 차용 전략을 쓴 특정일 관련 어휘 범주와는 달리 아래 <예 9>와 같이 라틴어 음차를 일부 활용했다.

<예 9>
ST: Dies irae – dies illa
Kyrie eleison
Yitgadal v yitkadash, etc. ('Requiem')
TT: 디에스 이레 - 디에스 일라
천주님의 어린 양
우리를 보호하사

위 가사는 레퀴엠, 즉 죽은 자를 위한 진혼 미사곡으로서 천주교 진혼 미사 때 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적 장엄함과 이국성을 살리기 위해 첫 문장은 라틴어로 음차하였고 다음 문장부터는 자국화 전략을 사용하여 유의어로 대체하는 전략이 관찰되었다.

8) YBM 올인올 영한사전(https://www.ybmallinall.com/)

4.5 관용어

관용어에는 속담, 관용구, 비유, 외국어가 포함된다. 관용어의 번역 전략을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관용어 번역 전략

분류	직역		의역			생략	합계 (%)
	차용 (음차)	축어역	일반화	대체	중화		
관용구	3	1	1	4	8	1	**18 (20)**
비유	0	1	1	1	4	0	**7(8)**
외국어	0	0	0	1	6	0	**7(8)**
속어	6	4	7	7	14	19	**57(64)**
합계 (%)	**9 (10)**	**6 (7)**	**9 (10)**	**13 (15)**	**36 (40)**	**20 (23)**	**89 (100)**

중화 전략(18건, 58%)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생략(20건, 23%), 대체(13건, 15%)가 뒤를 이었다. 구체화, 직의역 전략은 관찰되지 않았다.

관용구는 총 18건(56%)이 관찰되었는데 이 중 절반인 8건을 풀어서 중화해서 번역했다. 'Folks'd kill to fill your shoes'는 '다들 널 부러워한단 말이야', 'Look before you leap.'을 '난 너하곤 달라.' 등으로 문화색을 빼고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한 경우다. 대체(4건)는 대체로 TT의 속담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나타났는데, 'Maybe a little bird told her'를 '낮말들은 새가 알려줬나 보지'로 번역한 것이 그 예다. 일반화는 한 건이 관찰되었는데, 'I'll soon impart to the couch potatoes'는 '멍청한 애들을 가르치게 될 테니까'로 번역해 'couch potatoes'를 '멍청한 애들'이라고 일반화해 번역했다.

<렌트>는 미국 빈민가를 배경으로 하므로 다양한 인종들이 나온다. 이를 통해 라틴계 보헤미안들이 등장하며 배역 중 하나인 미미의 엄마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온다.

<예 10>
ST: Mimi, chica, donde estas?

www.kci.go.kr

Tu mama esta llamando
Donde estas Mimi (Voice Mail #5)
TT: 미미, 아가! 연락해라,
엄마다. 잊지 않았지?
전화해라, 미미.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어 뮤지컬에서 이민자들이 흔히 쓰는 언어인 스페인어가 등장했고 이는 이방인 효과를 노렸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 스페인어에 친숙하지 않은 한국인들은 이해가 힘들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화해 번역했다. 실제 연기에서도 억양이나 사투리 등을 사용해 이방인의 느낌을 전달하는 등의 노력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TT에서 '이민자' 설정을 아예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렌트>의 주인공들은 20대 청년들의 이야기이다. 이에 따라 속어가 빈번하게 관찰된다. 속어는 다른 유형과는 달리 생략(19건, 33%)이 가장 많이 관찰된다.

〈표 7〉 속어 번역 양상

ST	TT
yuppie scum	저 자식
skin head	머저리 같은 놈
ker-ching	돈 벌기
honeybear	허니베어
baby	베이비
pookie	뿌끼
chill	그만해
drag queen	게이
cutie pie	이쁜이
S and M	할렐루야
stash	뭘
crack	어떤 것, 좋은 거
jugie boogie	약
playing hookie	X
jam	약
smack	마약, X
girlie mags	X

booze	X
forty-fives	X
sugar	언니
kitten	아가야
junkie	마약 중독자
dudes	야, 임마

속어는 상당 부분이 호칭이다.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한 용도로 'yuppie scum', 'skin head'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baby', 'honeybear', 'pookie', 'cutie pie', 'kitten'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표현 중 3건은 '허니베어', '베이비', '뿌끼'로 음차하여 표현했으며 2건은 '이쁜이', '아가'와 같이 자국화 전략을 사용하였다. 'yuppie scum'(전문직 쓰레기) 등의 비하하는 호칭은 중화해 '저 자식'으로 번역했다.

마약을 의미하는 단어인 'stash', 'crack', 'jugie boogie', 'jam', 'blow', 'smack'은 '약'으로 일부는 상위어를 사용해 일반화해서 번역하고, 일부는 '좋은 것'으로 중화해 번역했으나 생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속어 중에서도 마약을 나타내는 용어는 속담이나 관용구와는 달리 중화해 풀어쓰거나 생략하는 전략이 압도적임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의 번역자는 당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관객이 느낄 수 있는 생경함이나 거부감을 줄이려고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알 수 있다.

4.6 비속어: 욕설 및 선정적 어휘

<렌트>에서는 욕설과 선정적 어휘의 비속어가 두드러진다. 이는 배경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작품 자체가 1990년대에 가난한 예술가, 동성애자, 마약 중독자 등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표 8>은 뮤지컬 <렌트>에 등장한 대표적 욕설과 선정적 어휘가 TT에서 번역된 양상을 나타낸다.

www.kci.go.kr

〈표 8〉 욕설 및 선정적 어휘 번역 양상

ST	TT
that fuck	개자식
anal retentive	변태 레즈비언
rubber	콘돔
latex	정액
how the hell	빌어먹을
wench	이 년
damn	이런, X
motherfucking	좆같은, 좆같은 + 미친놈
shitty	엿 같아
fuck	임마
goddamn	X
hell	염병할
fuckin'	X
dildos	채식
masterbation	딸딸이
sodomy	모든 것

흥미롭게도 속어와는 달리 비속어는 대부분의 표현들이 생략되지 않고 자국화되어 표현되었다. 특히 자국화를 사용해 의역된 표현들의 경우 강도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다. 아래는 비속어의 강도 변화를 분석한 표다.

〈표 8〉 비속어 번역 강도 변화

분류	의역			생략	합계(%)
	약화	유지	강화		
욕설	8	6	1	5	**20(63)**
선정적 어휘	1	7	4	0	**12(38)**
합계(%)	**9(28)**	**13(41)**	**5(16)**	**5(16)**	**32(100)**

전체 비속어 32개 중 유지가 14건(44%)으로 가장 많고, 약화가 9건(28%), 생략 5건(16%)으로서 강화 5건을 압도한다. 비속어 번역 시 번역자가 번역 시 정서를 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욕설과 선정적 어휘의 전략 방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주의를 끈다. 욕설의 경우 유지, 약화, 생략 전략을 통해 속어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순화하려는 노력을 했다. 단 한 건이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예 11>
ST: Let's go – this lot is full of
Motherfucking artists
Hey artist
You gotta dollar?
I thought not ('On the Street')
TT: 가자! 이 동넨 죄다
좆 같은 예술가들밖에 없어
어이, 예술가 선생! 돈은 좀 있수?
있을 턱이 있나!
미친 놈!

이 부분은 노숙자 여인이 돈을 구걸하며 부르는 부분인데, 'motherfucking'은 TT에서 '좆 같은'으로 바뀌었으며 가사 끝에 '미친 놈'을 추가하여 비속어가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노숙자라는 캐릭터의 강하고 천박한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선정적 어휘의 경우 생략은 한 건도 없고, 유지(7건) 다음으로 강화(4건) 시도가 많았다. 이러한 강화 시도는 모두 'Contact'에서 관찰되었다. 이 넘버는 작품 후반에 출연진 전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로서 다양한 커플의 섹스로 시작해 로저와 미미, 모린과 조앤이 각각 이별을 하고, 주인공 앤젤이 에이즈 합병증으로 숨을 거두는 클라이맥스 부분이다. 비언어적 신호 측면에서도 등장인물들이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몸동작을 취한다. 아래 <예 12>는 선정성 강화의 예다.

<예 12>
ST: Hot-hot-hot-sweat-sweet
Wet-wet-wet-red-heat
Sticky-licky-trickle-tickle
Steamy-creamy-stroking-soaking ('Contact')

www.kci.go.kr

TT: 뜨거워, 땀에
젖었어, 열정
집어넣어 핥아, 핥아
부드럽게 세게 빨아

위 <예 12>에서 볼 수 있듯이 ST에서는 sticky, licky, steamy, creamy 등 형용사가 TT에서는 노골적인 동사로 표현되면서 강도가 강화되었다. 아울러 동일한 넘버 내에 'No latex rubber rubber /Fire latex rubber latex'라는 부분이 있다. TT에서는 이를 '안돼, 유액, 콘돔, 콘돔, 됐어/ 정액, 콘돔, 정액'으로 번역이 되었다. ST와 다르게 TT에서는 '정액'을 삽입해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육체적이고 감정적으로 격한 상황이라는 효과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번역자는 강렬한 선정적 어휘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라이선스 뮤지컬의 한글 번역에서 나타나는 문화소 번역 전략에 관한 연구이다. 국내에서 흥행한 작품 중 시대성, 지역성이 뚜렷하면서 비판을 함께 받은 <렌트>를 대상으로 번역 전략을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뮤지컬 <렌트> ST의 도량형, 고유명사, 함의가 있는 고유명사, 사회·문화 관련 용어, 속담을 포함한 관용구, 비유, 외국어, 속어 등의 관용어, 욕설 및 선정적 어휘로 구성된 비속어를 추출해 이들이 번역된 양상을 기준으로 차용, 축어역, 일반화, 대체, 구체화, 풀어쓰기, 직의역, 생략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도량형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된 번역 전략이 중화>일반화>차용>축어역>생략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유명사는 중화>생략>차용>대체>일반화>축어역>직의역 순으로 관찰되었다. 함의가 있는 고유명사는 중화>차용=일반화>직의역 전략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 관련 용어는 대체>차용>중화>생략>일반화>축어역 순으로, 관용어는 중화>생략>대체>차용=일반화>축어역 순으로 나타났다. 관용어에서 생략은 총 20건 발견되었는데 그 중 19건이 속어에서 관찰되었다.

한편 욕설 및 선정적 어휘로 구성된 비속어 번역의 경우 욕설에서 생략된 5건을 제외하고 모두 의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욕설의 경우 약화>유지>생략>강화의 순으로, 선정적 어휘의 경우 유지>강화>약화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략 전략은 관찰되지 않았다. 속어와 욕설의 경우 생략이나 강도 약화를 통해 순화한 반면 선정적 표현은 오히려 강도를 높인 것은 의외라 할 것이다.

모든 범주에서 구체화 전략은 관찰되지 않았고, 직의역 전략도 함의가 있는 고유명사 한 건을 제외하고는 관찰되지 않았다.

6. 결론

6.1 논의

분석 결과 문화 번역 전략에서 문화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문화 관련 용어를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ST 문화 충실성보다는 문화색을 빼거나 아예 다른 범주로 바꾸어 의미 전달에 주력하는 중화 전략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마약과 동성애 등의 소재로 인한 청중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뮤지컬의 시공간적 제약을 고려한 메시지의 즉시 전달이 필수적인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욕설 및 선정적 어휘는 의역이 대부분이고 강도도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20대끼리의 호칭은 한국어에서 대응어를 찾기가 힘들었고, 마약 관련 속어는 당시 마약이 심각하게 터부시되던 국내 정서를 고려해 전달을 꺼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정적 표현의 강화 전략은 넘버 'Contact'에서만 관찰되었는데, 극의 구성상 해당 넘버가 커플의 섹스와 파국, 앤젤의 에이즈로 인한 죽음 등을 상징하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격렬한 장면을 그리고 있으므로 극적인 효과를 충실히 전달하려는 번역자의 개입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번역자 김철리가 연출가 출신이라 극의 흐름과 연출까지 염두에 두고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단, 실제 번역 및 번역 수정이 제작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입이 번역가, 연출가, 음악감독, 배우, 관객 반응 중 어느 단계

www.kci.go.kr

에서 일어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구체화 전략이 한 건도 관찰되지 않은 이유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ST의 문화소를 TT에서 더욱 상세한 문화소로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 범위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ST의 문화소가 TT에서 번역된 방법만을 보았기 때문에 ST에서 문화소가 아닌 어휘가 TT에서 문화소로 구현된 경우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아울러 직의역 전략이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이유는 직역을 하고 설명을 추가하는 이 방식은 ST에 비해 TT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이므로 러닝타임을 제한해야 하는 뮤지컬 번역에서 지양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렌트>에서 중화와 생략 전략이 대부분 우위를 차지하는 이유도 일부 설명한다 하겠다.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도량형이나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직역(차용)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문화적인 차이를 없애고 중화하는 전략, 생략, 목표 문화권에서 익숙한 어휘 중 상위나 동일한 수준의 어휘 등으로 대체하는 자국화 전략이 우세하게 사용되었고, 속어나 욕설 등은 생략하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볼 때 본 작품은 번역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화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객들이 후기에서 정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평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는 번역 전략의 문제기보다는 당시 사회상에서 느껴지는 동성애와 에이즈, 마약, 섹스 등 소재 자체의 이국성과 거부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 공연된 <렌트>에서는 대본이 오히려 직역 중심으로 번역이 수행되어, 2004, 2009년, 2011년에는 '좋은 것'이라고 번역되었던 것이 2020년에는 '필로폰', '대마초'로 노골적으로 번역되었음을 볼 때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리고 번역자의 정체성에 따라) 번역자가 개입 정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뮤지컬이 사회 변화의 영향을 받아 최근 번역이 더욱 노골적이거나 자극적이 되었다는 홍정민의 연구(2016)와도 궤를 같이 한다.

6.2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렌트> 뮤지컬에 포함된 넘버를 전수 분석하고, 뮤지컬 공연 당시 사회상과 번역자를 고려함으로써 뮤지컬 연구의 양적·질적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겠다.

향후 연구 범위를 확대해 번역자의 전문 분야(번역, 연출, 작곡 등)에 따른 번역 전략의 차이를 연구하거나 ST와 TT의 차이가 제작 어느 단계 또는 누구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 내용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면 뮤지컬 번역 연구의 확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본의 제작 시기가 2004년으로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기 때문에 관련 변수를 충분히 심도 있게 고찰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2004년 당시는 뮤지컬 번역자에 대한 인식이나 존재감이 현재처럼 크지 않아 당시 뮤지컬 번역 전략이나 번역 방식, 번역에 대한 관객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신문 기사나 문헌 등이 번역자 정보 외에는 찾기가 힘들어 관찰된 번역 전략 이유를 본 연구자의 추론에 대부분 의지했다는 한계가 있다. 문화소 분류도 뮤지컬의 다중모드적(multimodal) 특성을 반영해 비언어나 소품을 통한 전달 측면을 고려하는 등 장르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의 틀을 일부 조정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있다 하겠다.

앞으로 2011년 또는 2020년 공연 대본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시행한다면 사회 및 시대 변화와 이에 따른 번역자의 개입 양상을 더욱 대조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2004년 대본 분석이 향후 분석을 위한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2020 공연예술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신 (2014)「노래 번역, 뮤지컬 번역에 대한 소고」, 통번역교육연구』 12(1): 209-226.

강승완 (2012)『뮤지컬 배우를 위한 효과적인 발성법의 이론적 고찰 - 뮤지컬 <렌트>와 오페라<라보엠>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영주 (2009) 김동인의『감자』에 나타난 문화소의 번역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www.kci.go.kr

권인경 (2013)「문화소 번역 방법 연구-제주도 관광안내텍스트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25: 37-59.

김도훈 (2006)「문화소 번역에서의 인지적 축적물의 역할 및 번역 전략」, 통역과 번역』 8(2): 3-29.

김세현 (2014)「뮤지컬 영화의 노랫말 번역 전략 고찰」, 새한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4(5): 5-13.

김영신 (2014)「노래 번역, 뮤지컬 번역에 대한 소고」, 통번역교육연구』 12(1): 209-226.

김효중 (2004)「문학 변용으로서의 번역: 텍스트생성의 모델화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32: 273-301.

노진서 (2007)「한-영 시에 활용된 문화소의 번역 전략」, 이중언어학』 35: 127-146.

박옥수 (2012)「한국 단편소설의 번역에서 드러난 가독성의 규범 - 신경숙의 '그 여자의 이미지' 영역에 근거해서」, 겨레어문학』 48: 165-190.

이가람 (2016) 미국소설의 한국어 재번역 연구: 동인 및 문화소 번역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근희 (2003)「문화와 밀접한 상관어(相關語)의 번역 전략」,『번역학연구』 4(2): 5-27.

이지민 (2015)「전통 영상번역과 팬자막 비교 연구: 문화 관련 어휘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2): 135-158.

이지민 (2017)「뮤지컬 번역 연구: 오리지널 및 라이선스 뮤지컬의 번역 주체, 번역 절차와 특징, 번역 시 고려 사항 중심으로」,『통번역학연구』 21(3): 138-160.

이현경 (2014)「아동문학의 문화소 번역연구 – 유머아동문학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8(4): 193-225.

정호정 (2008) 제대로 된 통역 번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조성은, 홍승연 (2017)「뮤지컬 명성황후의 공연자막 연구」,『통번역학연구』 21(3): 161-190.

조재범 (2015) 한영 자막 번역과 문화소 번역 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정민 (2016)「재공연을 통해 본 뮤지컬 가사 번역의 변화와 원인 - 손드하임의 스위니 토드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특별호): 191-241.

홍정민 (2021)「패밀리 뮤지컬 번역과 아동 관객: <마틸다>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2(1): 313-350.

Aixelá, Franco Javier (1996)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in R. Álvarez, and M. Vidal (eds) *Translation, Power and Subvers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52-78.

Antonini, Rachele (2005) 'The Perception of Subtitled Humor in Italy: An Empirical Study', in D. Chiaro, (ed.) *Humor: International Journal of Humor Research,* Special Issue Humor and Translation 18(2): 209-225.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New York: Routledge.

Diaz Cintas, Jorge and Aline Remael (2007)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ing,*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Hagfors, Irma. (2003) 'The Translation of Culture-Bound Elements into Finnish in the Post-War Period', *Meta* 48(1-2): 115-127.

Hervey, Sandor and Ian Higgins (1992) *Thinking Transl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Katan, David (2004) *Translating Cultures: An Introduction for Translators, Intepreters and Meditotar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Kirk, Sung Hee (2008) 'Translated Musicals and Musical Transl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9(1): 283-309.

Leppihalme, Ritva (1997) *Culture Bumps: An Empirical Approach to the Translation of Allusions*, Bristol: Multilingual Mattters.

Nida, Albert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J. Brill.

Newmark, Peter (1988) *Textbook of Translation*, Oxford: Pergamon Press.

Pederson, Jan (2011) *Subtitling Norms for Television*, Amsterdam & Philadelphis: John Benjamins.

Vinay, Jean-Paul and Jean Darbelnet (1958/2003). *Comparative Stylistics of French and English: A Methodology for Translation*, Amsterdam &

www.kci.go.kr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인터넷 자료>

박병성 (2018.07.18).「[COLUMM] 한국 뮤지컬 시장, 어느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더 뮤지컬』 제179호. Available at 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num=3789.

박천휘 (2019.03.06.).「[SPECIAL] 뮤지컬 번역의 중요성, 뮤지컬 번역에 다가가기」, 『더 뮤지컬』 제185호. Available at http://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num=4041.

박민수 (2017. 10. 19)「'부산 에이즈' 오해와 편견 심각..."감염자를 죽이는 것은 에이즈 자체보다 차가운 시선"」,『부산 제일 경제』. Available at https://www.busa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08.

서동욱 (2008. 2. 3.)「'마약 청정국 적신호' 마약류사범 대폭 증가」,『머니투데이』. Available at https://news.mt.co.kr/mtview.php?no=2008020122131738285&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엄지원 (2013. 4. 24.)「소년의 자살 10년 지났지만...동성애 시선은 여전」,『한겨레』. Available at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 584469.html.

연합뉴스 (2004. 12. 15)「유행어로 본 2004년」,『연합뉴스』. Available at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852743.

연합뉴스 (2006. 9. 25)「<스테이지 2010> 김철리 2006서울국제공연예술제 예술감독」. Available at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420004.

이상훈 (2014. 11. 29)「생방송 'AIDS…' 대책과 예방」,『서울경제』. Available at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11&aid=0000060516.

이성주 (2002. 12. 13)「성전환 수술 하리수씨 호적정정 허가결정」,『동아일보』. Available at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167544.

이지웅, 박준규 (2014. 7. 18)「[휴먼다큐] 軍인권에 천착해온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의 삶…"우리 軍은 중증 자폐증상"」,『동아일보』. Available at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717000341&md=201407211.

Ordurary (2007) 'Translation Procedure, Strategies and Methods', *Translation Journal,* 11(3). Available at http://www.bokorlang.com/journal/41culture.htm.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ranslation Strategies of Licensed Musical *Rent*
— Focusing on Culturemes

Kang, Inhae · Lee, Jimin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cultureme translation strategies of licensed musical *Rent*. Musical *Rent* is a work with distinct periodicity and locality. This study classified culturemes into six categories: units of measurement, proper nouns, proper nouns with implications, social and cultural terms, idioms and slangs, and cuss and sexual vocabulary.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st frequent strategy in *Rent* was neutralization where the translator deleted cultural specificities, focusing on delivering messages. The translator also attempted to tone down or delete slangs and cuss vocabulary while intensifying the strength of sexual vocabulary. This shows that the translator actively intervened to make it relatively easy for the audience to culturally accept unfamiliar vocabularies but at the same time to effectively deliver the key message of the musical to the audie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musical research in quantitative terms, but the data are limited to one musical, produced in 2004. Avenues for future research include a comparative study of different versions of scripts produced in 2011 and 2020.

▸ Key Words: culturemes, culture-bound terms, translation strategy, licensed musical, musical *Rent*
▸ 주제어: 문화소, 문화 관련 어휘, 번역 전략, 라이선스 뮤지컬, 뮤지컬 렌트

강인혜
계명대학교 대학원 통번역학과 석사
krabi2002@naver.com
관심분야: 뮤지컬 번역, 통번역 교육

이지민
계명대학교 대학원 통번역학과 부교수
ke9836@daum.net
관심분야: 뮤지컬 번역, 문학 번역, 네티즌 번역

논문투고일: 2021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21년 9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7일

www.kci.go.kr